

대구U대회 화려한 개막 광파르 불교활동 “눈에 띄네”



▷태고종은 17일 대구 월드컵경기장 서편광장 특수무대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8월 21일 세계 청년들의 체육축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된 가운데 대구불교계가 불교관 개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서포터즈 운영 등 한국불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스님(가운데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불교계 북한 서포터즈 회원 50여명이 21일 북한-덴마크배구경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선수촌 불교관

선수촌 불교관은 개막 10여일 전인 14일 대구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동년중학교 5층에 문을 열었다. 대구불교중앙협의회(회장 지성)가 운영하는 불교관에 21일 현재 태국, 이탈리아, 중국,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등 20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다녀갔다. 21일에는 천태종 주관으로 대회개막과 더불어 개막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 내부에는 참가국 선수들

의 선전을 기원하는 만국기와 연등이 걸려 있으며, 20여명의 통역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특히 한국의 다도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다도실은 외국인인 물론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요원들도 찾아올 만큼 인기가 높다.

또 북한선수단의 환영행사가 열린 20일에는 불교관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거리로 나와 직접 만든 연등을 북한 선수들에게 건네주며 악수를 하는 등 한민족의 동포애를 나타냈다.

불교관

14일 개관, 외국선수 200여명 방문... 다도실도 운영

문화행사

달마도전·성공기원 영산대제·불상조각 시연

서포터즈

동화사-몽골, 평불협-북한, 진각종-아랍권 지원

문화행사

7월 31일 대구국제보상공원에서 열린 유네스코대회 개최년도(2003년)와 참가국(170개국) 수를 합한 2,173점의 달마도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8월 17일에는 대구 월드컵경기장 서편광장에 마련된 특수무대에서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기원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21일부터는 불교조각가 박찬

수(목야박물관장) 씨의 불상 조각 시연 등 주요무형문화재 전승자 97명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리전통 작품 200여 점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였다.

서포터즈

현재 대구불교계 3곳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13일 한·몽골불교교류협회를 창립한 대구 동화사는 몽골서포터즈를 결성, 몽골선수단에 운동복 등을 지원하며 응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 후에는 경주 불국사 등지의 사찰을 순례할 계획이다. 북한서포터즈를 구성한 조국평화통일불교회 경북대구본부는 20일 북한 선수단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북한선수단의 첫 경기인 북한-덴마크 배구경기

서 북한응원단과 함께 열린 응원을 펼쳤다. 27일에는 금호강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팔공고려문화제 전시회 통일희망관을 운영,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에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편지를 북한 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진각종 화락심인당은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몰디브 등의 아랍권 국가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진각종 서포터즈는 한국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선물과 경주엑스포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단군신화의 흥익사상은 불교자비정신 격상시킨 것

불교문인협 심포지엄

한국불교문인협회는 8월 15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제15회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한국 불교문화 심포지엄'을 열었다. 동화사 설법전에서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삼국유사와 한국문학'을 주제로 지역의 한문학자 지준모씨가 주제발표를, 경산대 조준호 교수와 한국불교문

인협회 구상희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에서 지준모씨는 "삼국유사는 원시적인 내용의 단군신화를 흥익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제도종생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해석했다"며 "이것은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에서 불교의 자비·원만 사상 정신으로 한층 격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준모씨는 또 "삼국유사의 문화적인 부분의 공적은 신라 향가를 원형에 가까운 향찰로 14사나 기록하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규 기자

기도성지 연화도에

10월부터 유람선 뜬다

연화사, 천불사 등의 기도도량이 있고 통영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연화도에 유람선이 취항한다. 충무유람선협회는 8월 17일 산양

읍 달아마을-연화도 노선에 정원 160명 규모의 유람선 2척을 취항기로 결정, 오는 10월부터 터미널 신축에 나선다. 이로써 연화도에 있는 연화사 해수관음보살상, 촛대바위, 거북바위, 용머리바위 등 불교 성지를 찾는 불자들의 방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원산 스님 전강법회 제자 선행 스님 강맥이어

대강맥 원산스님 전강법회(사진)가 8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는 열렸다. 전강법사인 원산스님은 전강제자 선행스님에게 법광(法光)이라는 법호를 내리고 그 공표로 밀봉한 불조원류(강맥) 이어진 경리를 전하며 전강계를 내렸다. 원산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강백 설호스님을 시작으로 지지사 강백 관승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 천미희 기자



홍릉사탑 이미지 조형물

경주엑스포 상징탑 불투명

당초 신라 황룡사 9층탑을 모형을 제작될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의 기대를 모았던 경주엑스포 상징탑이 결국 공모를 통해 결정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엑스포 조직위 측은 2006년까지 총사업비 300여 억 원을 들여 엑스포공원 내에 건립하게 될 상징조형물(랜드마크) 건립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주엑스포는 오는 8월말까지 세부방향을 정해 늦어도 9월까지 엑스포 상징탑 건립을 위한 공모를

국내외에 진행시켜 올해 안으로 설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 상징탑 건립문제는 최근까지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하는 형태, 황룡사탑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형태, 현대식 감각에 맞게 전혀 새로운 상징조형물로 건축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안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박원규 기자

'장례식장 건립' 선암사 승소판결

부산지법, '설계변경 불허 효력 없다'

장례예식장 건립을 놓고 부산진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던 부산 선암사가 8월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건에 대해 "기존의 건립 중에 있는 문화집회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허가를 거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선암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선암사가 냈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승소로 장례식장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립 중이던 시설물을 2002년 12월 장례식장으로 설계 변경 허가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부산진구청과의 약연은 부산진구청이 혐오시설로 극심한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을 불허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2003년 1월 8일 진구청이 허가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고 선암사는 1월 15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승소판결에 대해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장례예식장 건립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승소판결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설계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문화집회시설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항소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변경을 신청하면 산림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거 다시 반려될 것"이라며 설계 변경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련 후 스님, 법사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실고 있습니다.

◎ 2003년 7월말에 파동수련을 하신 자광스님(마산시, ☎017-316-6221)은 수련이 끝난 뒤, 수험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여학생을 명상상태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은 1년 전부터 주위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험준비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명상상태에 들자 여학생은 전생에 거부(巨富)로 살았던 당시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정이 워낙 돈독한 부자기간이었던지라, 전생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여학생은 '아버지'를 부르며, 부둥켜안는 시늉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전생의 아버지는 현실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다. 생전에도 할아버지는 어

릴 때부터 이 여학생을 주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꼈었고, 여학생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생부터의 인연이 집착이 되어 할아버지는 죽은 뒤에도 영계로 가지 않고 이 여학생 주위를 맴돌며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하게 했고, 소녀는 항상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님이 인연법을 정리하여 천도하고 난 몇 일 뒤, 그 여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장시간(4시간)을 집중했는데도 전혀 시간이 지난 지 모를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졌고 주의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식(자연영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영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기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9월 첫째주, 셋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